

5-5-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16

말씀 제목: 아무도 논쟁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  
육신으로 나타나신 경건의 신비

경건의 신비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도 이미 죄로 인해 부패한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하거나 논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 속담에 있는 것처럼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는 말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경건의 신비에 대하여 증거할 때,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자신의 생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가 누구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예수가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비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며 이 신비는 비밀과는 다른 것입니다. 비밀은 아무도 알 수 없도록 가려져 있는 것이지만, 신비는 마치 비밀처럼 보이지만 깨달은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신비”, 즉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신비, 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신비에 대해 아무도 논쟁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께서 세상에 나타나시기 전 700 여 년 전에 경건의 신비에 대해 미리 예언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에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음이라.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는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의 양이 말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가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음이었,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음이라”(사 53:1-8)

예루살렘에 경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내시,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케 휘하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지닌 자가 돌아가는 마차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을 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마차에 함께 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이사야 53 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기를 ‘당신께 부탁하노니 이 말은 누구에 관한 것이뇨? 자신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이뇨?’ 하니 이때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사야 53 장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 즉 그분이 여호와와 팔이 나타나서 육신을 입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 증거할 때 그 내시는 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서 육신이 되신 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께서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그분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당자라, 능하신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 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사 9:6-7)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나니라.”(I AM THAT I AM)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 (I AM)였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 자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I AM THE WAY, AM THE TRUTH, AM THE LIF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요 14:6)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Before Abraham was, I AM)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증거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가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 1:1-4)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그 생명이 나타나시매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 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요일 1:1-2)

사도 바울도 경건의 신비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였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5-11)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다고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부터 예수가 그들의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메시야가 되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행 2:36)

안타깝게도 성령이 없는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머리가 세 개 달린 괴물처럼 알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IMAGE) 과 모양(LIKENESS)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창 1:27a)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신 것처럼 사람도 혼과 영 그리고 몸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나의 영, 나의 혼 그리고 나의 몸이라고 말하며 자신도 하나님처럼 삼위일체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요일 5:7) 아멘! 할렐루야!